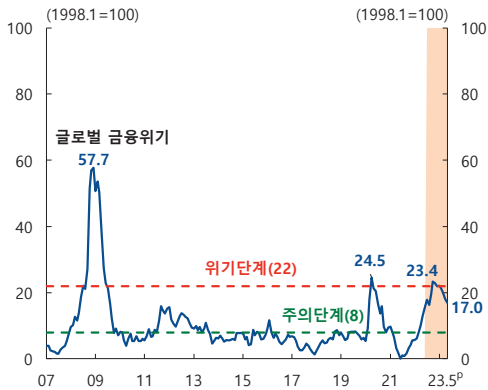

개 관

금융안정 상황 및 리스크 평가

금융안정 상황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금년 상반기중 글로벌 은행 불안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였다. 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긴축 속도조절 기대 등으로 금리가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등 안정세를 보였고, 금융기관의 양호한 손실흡수력을 바탕으로 금융중개기능도 원활하게 작동하였다. 다만 무역수지 적자 등 성장세가 둔화되고 가계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저하되고 있다. 단기적인 금융시스템 불안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 Financial Stress Index)는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위기단계까지 상승(23.4)하였으나 금년 2월 주의단계로 하락한 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금융불안지수(F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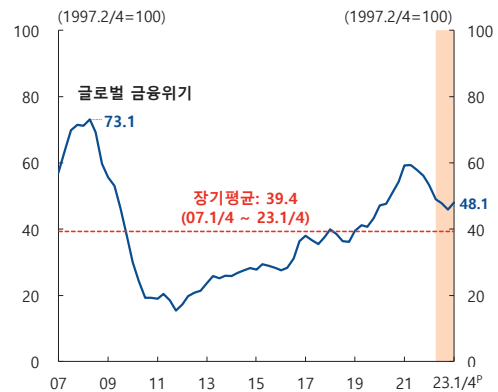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기준금리 인상, 경제주체의 위험선호 약화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등 그간 누증된 금융불균형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금년 들어 국내외 통화정책 긴축기조 완화 기대 등에 영향을 받아 주식이격이 상승하고 부동산가격 하락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다시 늘고 있어 금융불균형 누증의 축소가 제약되는 모습이다. 이를 반영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반적인 금융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 Financial Vulnerability Index)가 금년 들어 소폭 상승하였다.

금융취약성지수(FVI)



자료: 한국은행

부문별 상황

신용시장에서는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민간신용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명목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한편 4월 이후 주택시장 부진이 완화되고 주택관련 가계대출이 다시 늘고 있어 금융불균형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가계 및 기업 부채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향후 높은 금리수준이 지속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취약 차주 및 자영업자, 한계기업 등을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산시장에서는 주식 및 채권 가격이 글로벌 은행 불안 등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였으나 국내외 통화 긴축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정부의 시장안정화대책 등으로 신용경계감이 완화되면서 큰 폭 축소되었다. 주택가격은 기초경제여건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가운데 금년 들어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다. 향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부동산 정책 등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보면 자산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자산건전성이 저하되었다. 은행의 경우 대출 증가세 완화 등으로,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증권사 투자자 예치금 감소, 보험회사 신 회계기준 적용의 영향 등으로 자산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자산건전성은 대출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모든 금융업권에서 악화되었다. 향후 높아진 금리가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가계와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조치가 정상화되면서 자산건전성이 추가로 저하될 수 있다.

자본유출입 상황을 보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주식 및 채권 모두 순유입되었으나 국내외 신용이벤트 발생,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 등에 따라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시스템 복원력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대내외 충격 감내 능력을 의미하는 금융시스템 복원력은 자본적정성 비율과 유동성 비율이 규제기준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였다. 다만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복원력이 다소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들 기관은 향후 대내외 여건 변화와 외부 충격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 및 자본확충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금융기관들은 최근 비대면 디지털 거

래가 크게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하여 기관간 수신자금 이동이 빠른 속도로 발생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순대외채권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명목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이 상승하였으나 외환보유액은 전년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 지급결제시스템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한은금융망 등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결제 규모가 금융기관의 증권결제, 개인기업의 전자자금이체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결제리스크도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주요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높은 가계부채 수준, 주택가격 조정, 기업 재무건전성 및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저하 등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취약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 향후 높은 금리수준 유지, 실물경기 회복 지연, 부동산시장 부진 지속,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등은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금번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 점검하였다.

먼저 현재까지는 지난해 하반기 중 주택시장 부진으로 인해 실제 현실화된 대출관련 부실 규모가 크지 않고 금융기관의 복원력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금융안정 리스크가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 19 이후 부동산시장 호황으로 크게 확대된 공적보증은 주택시장의 조정에 따른 충격을 일부 완화하고 있으나 부실 발생시에는 대위변제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주택가격이 질서있게 조정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임차기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전세대출 수요 둔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점진적 축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부진이 지속될 경우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부담 증대, 미분양주택 물량 증가, 부동산PF 부문의 부실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실리콘밸리 은행(SVB) 사태를 계기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잠재리스크를 점검한 결과,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중앙회의 양호한 유동성 지원 여력 등을 고려할 때 유동성 부족과 같은 잠재리스크가 현재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여타 금융권과의 상호연계성도 높지 않아 일부 금융기관의 부실 발생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도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최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비대면 경로를 통한 수신 증가하면서 예금 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은행의 기업여신 관련 건전성 지표가 아직까지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 등으로 인해 기업의 잠재 신용리스크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기업여신의 잠재 신용위험을 점검한 결과, 개별 기업이 실제 위험 대비 낮은 금리를 적용받음으로써 기업의 신용위험이 실제에 비해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은 향후 금융지원조치 종료, 예상밖의 경기회복 지연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정책 대응 방향

우선 높은 금리수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가

계·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가계와 기업 취약처주에 대한 채무재조정 및 필요한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다만 채무상환능력이 있는 가계·기업 처주의 경우 대출 상환을 유도하여 부채누증 압력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

부동산경기 부진은 가계부채 누증압력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대출 부실화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책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하면서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동산PF와 관련해서는 사업장별 미시적 대응책을 통해 사업진행을 지원하거나 신속한 정리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자의 과도한 위험 및 수익 추구 성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PF 관련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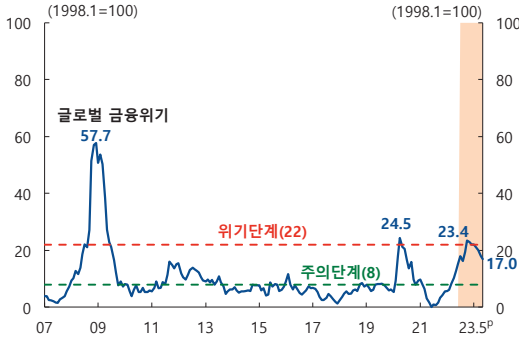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리스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자본확충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 등 수신을 기반으로 하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 부실우려 부각시 건전성 악화는 물론 수신이탈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안정적인 수신구조를 유지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이들 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책당국은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간 정책공조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바일뱅킹 등 새로운 금융환경하에서 디지털 뱅크런에 대응한 금융기관들의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긴급상황에 대비한 유동성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 유사시 신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장에 과도한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금융안정 주요 지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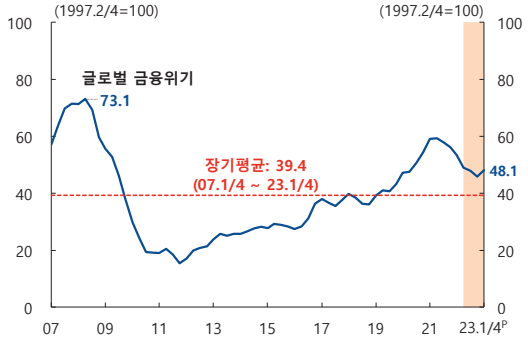
① 금융안정 상황 종합평가 단기적 금융불안(FSI) 완화, 중장기적 취약성(FVI) 소폭 상승

금융불안지수(FSI)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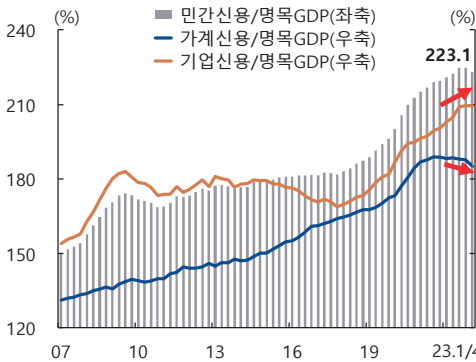
금융취약성지수(FVI)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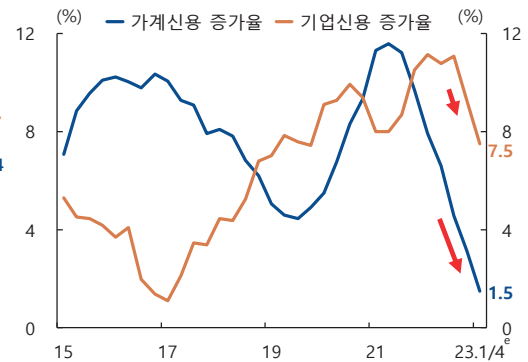
② 신용 레버리지 민간신용 레버리지 높은 수준 지속, 가계신용 증가세 둔화, 기업신용 증가세 지속

민간신용/명목GDP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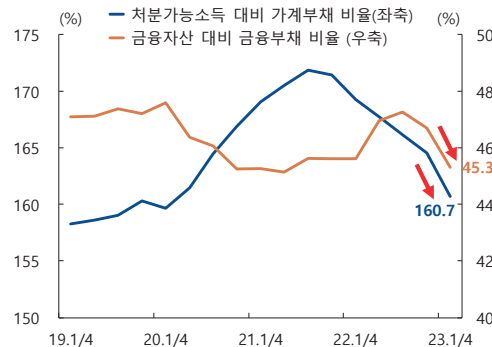
부문별 신용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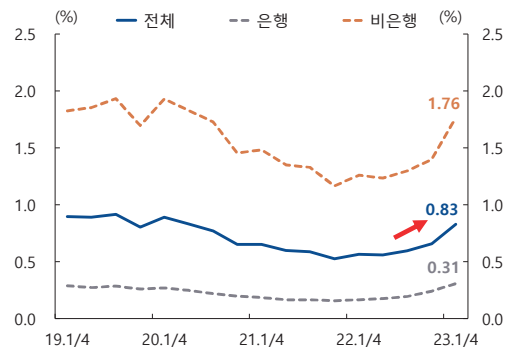
③ 가 계 가계 재무건전성 양호, 연체율 상승

채무상환부담 지표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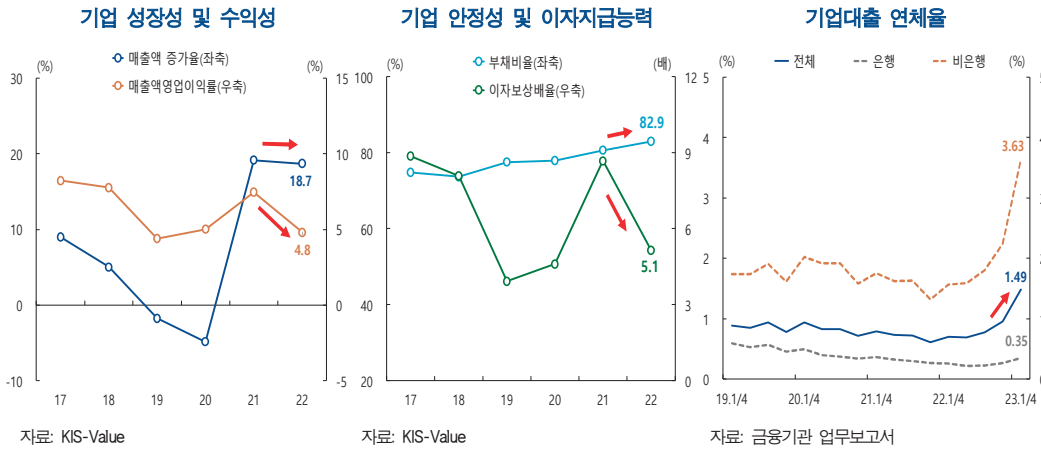
가계대출 연체율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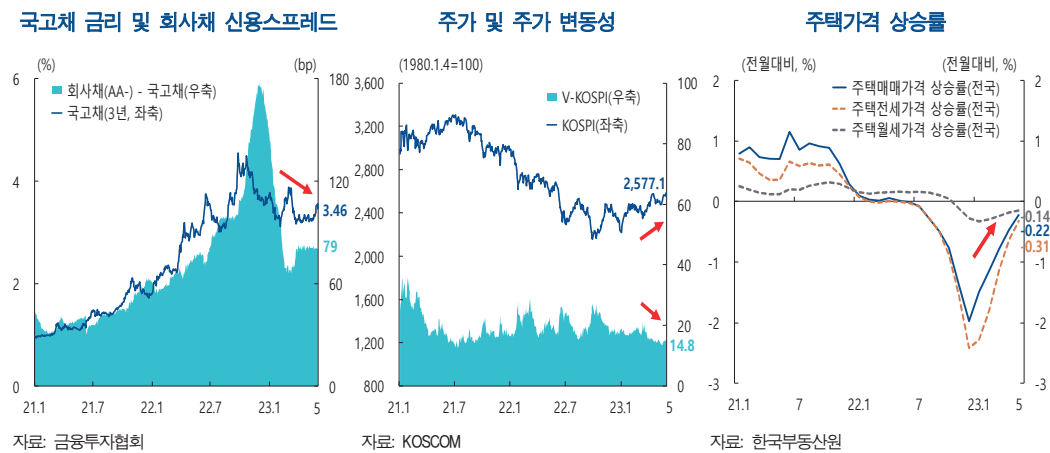
4 기업

기업 수익성 및 이자지급능력 **악화**, 기업대출 연체를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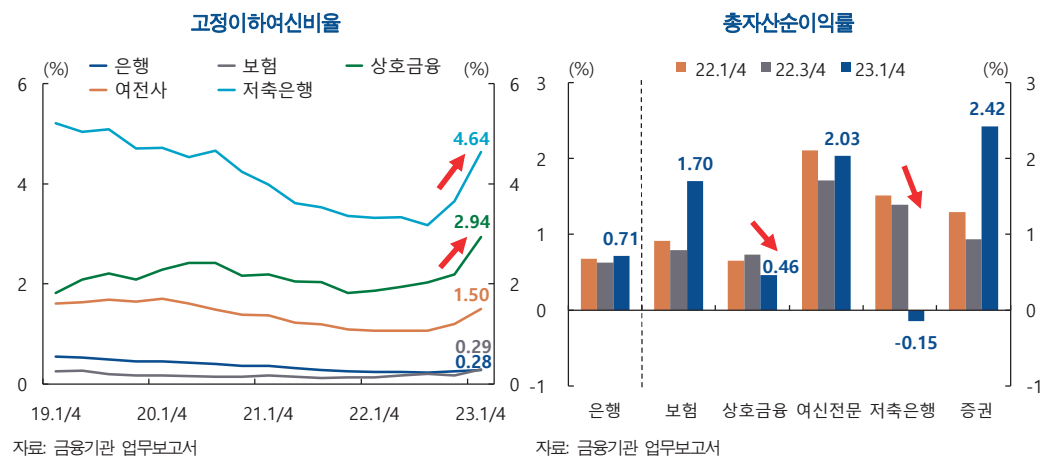
5 자산시장

국고채 금리 하락, 주가 상승, 주택가격 하락세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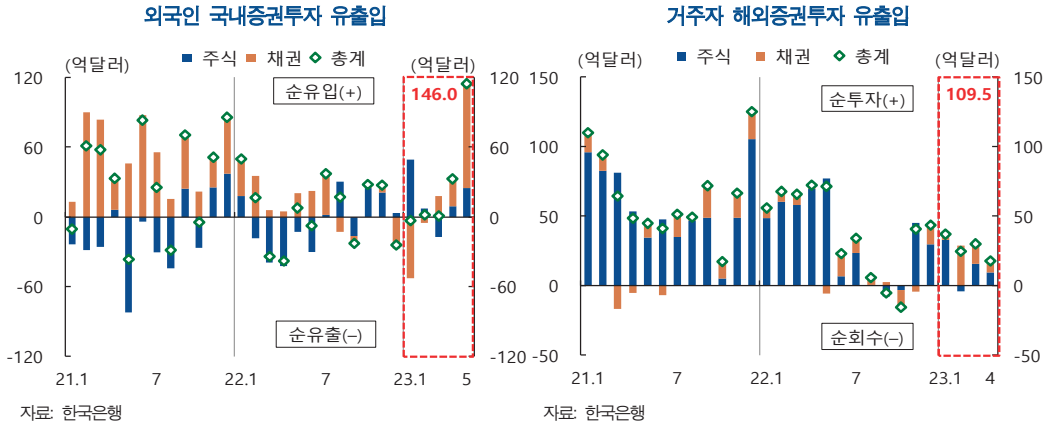
6 금융기관 건전성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저하**, 일부 비은행금융기관 수익성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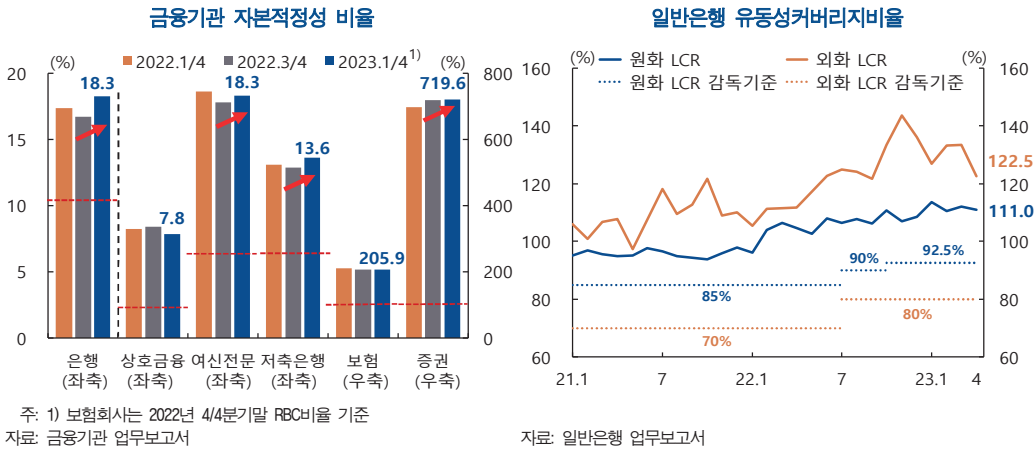
7 자본유출입

외국인 국내증권투자자 순유입, 거주자 해외증권투자자 증가폭 축소



8 금융기관 복원력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복원력 양호



9 대외지급능력 및 지급결제시스템

대외지급능력 대체로 양호, 결제리스크 안정적 관리

